

**전일동향**

전일대비 5.80원 상승한 1,381.20원에 마감

14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일대비 5.80원 상승한 1,381.2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2.60원 상승한 1,378.00원에 개장했다. 미국의 관세 부과 우려에 따른 위험회피 분위기에 환율은 오름폭을 꾸준히 확대했다. 다만, 1,380원을 중심으로 고점 인식에 따른 네고 물량 유입에 환율의 상단은 제한되며, 1,381.20원에 증가(15:30 기준)를 기록했다. 주간장중 변동 폭은 5.6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37.31원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증가(15:30)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378.00	1383.30	1375.60	1381.20	1378.50
	엔화	932.81	938.49	932.00	934.86	-
	유로화	1607.54	1616.59	1601.93	1610.73	-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1.28	-6.56	-14.64	-28.72
	결제환율(수입)	-1.05	-5.67	-12.74	-25.27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관세 불확실성 지속에...1,380원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2.55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381.20) 대비 1.55원 상승한 1,380.2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CPI 관망 속 관세정책 불확실성에 상승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협상에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50일 이내로 우크라이나와 휴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러시아 및 러시아 교역국을 상대로 100%의 2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달러화는 미국 CPI 경계 속 관세 불확실성에 0.24 상승한 98.11을 기록했다. 한편 백악관은 연준과 파월 의장에 금리인하 압박을 지속했다. 케빈 해시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연준의 관세에 대한 평가가 틀렸다고 하며, 금리를 3%로 낮춰야 한다고 발언했다. 엔화는 20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야당의 선전 가능성에 따른 재정 악화 우려 등에 약세 흐름을 보였다. 유로화는 관세 협상 가능성을 시사하자 달러 대비 약세를 시현하며, 1.1662달러로 마감했다. 금일 환율은 글로벌 강달러에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급상 결제수요 및 거주자 해외주식투자 환전 수요가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이는 환율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미 CPI 발표 경계 및 수출업체 고점매도 등에 상단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b>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b>	<b>1376.80 ~ 1386.20 원</b>
----------------------	----------------------------

<b>체크포인트</b>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3706.54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1.55원 ↑
	■ 美 다우지수 : 44459.65, +88.14p(+0.2%)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13.73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5775 억원

※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